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41호

Jeff Pippenger

2026-02-05

수 사십일

레위기 23장은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제시한다. 그 절기들의 표상은 전체 구조 속에서, 구조 자체에 있어서도, 또한 시작과 종결의 구조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데 있어서도, 신적으로 심오하다. 봄 절기와 가을 절기는 서로 상응한다. 이 장은 '기묘한 계산자' 팔모니를 거듭거듭 증언한다. 이 장은 십사만 사천에 관한 말세의 메시지와도 견실하고도 경이롭게 연결된다.

숫자 "23"은 속죄를 표상하는데,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다. 레위기라는 명칭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을 표상한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세를 말하며, 말세의 제사장들은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직'으로 규정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한 거룩한 제사장직은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산출하는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 곧 다니엘이 '악한 자들'이라 규정한 자들은 그 지식의 증가를 거절하며, 호세아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으로 버림을 받는다고 말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호세아 4:6, 7.

이사야가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 칭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그들의 영광이 "수치"로 바뀐다. 호세아는 마지막 때의 지식의 증가를 거절하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임을 분명히 지적하는데, 이는 그가 "내 백성"이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백성은 제사장으로서 버림받을 것이며, 그것은 마지막 곧 넷째 세대에 일어난다. 이는 그분이 그들의 자녀들을 잊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자녀들은 마지막 세대를 가리킨다.

하나-됨

'레위기 23장'의 제목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의 속죄'를 의미한다. 이 진리는 책의 이름과 장 번호의 결부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다. 레위기 23장이 다루는 속죄는 'at-one-ment'를 의미하며,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 결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많은 상징으로 표현되며, 그중 하나는 인간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성전은 "23"의 남성 염색체와 "23"의 여성 염색체라는 골격을 갖추고 있다. 베드로는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이 "신령한 집"임을 밝힌다. 그 염색체들은 남자와 여자처럼 서로 결합하며,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지니라. 혼인은 그 합일의 또 다른 상징이다. 레위기 "23"은 하늘의 대제사장의 성전과 십사만 사천인

제사장들의 성전의 결합을 의미한다.

스물두 구절

레위기 23장의 봄 절기들은 그 장의 처음 22절에, 가을 절기들은 그 장의 마지막 22절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절은 44절로, 이는 레위기 23장의 성취로서 일곱째 달 열흘에 반형적 대속죄일이 시작된 1844년을 상징한다. 23장은 22절씩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두 22절 부분은 모두 절기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봄철로 표상되는 그리스도의 뜰과 성소에서 사역과 가을철로 표상되는 그분의 지성소에서 사역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분된다.

22

봄 절기와 가을 절기 둘 다 스물두 개의 성경 구절로 표상되며, 그 구절들은 '22'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히브리 알파벳의 증거와 일치한다. '22'는 '220'의 십일조이며, '220'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220'은 또한 유다의 흠어짐의 2,520년과 대속죄일까지의 2,300년, 이 두 기간의 시작을 상징한다. 2,520의 기점은 기원전 677년이고 2,300의 기점은 기원전 457년이므로, 이로써 220년이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는 예언과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예언을 연결하는 고리로 식별된다. 이 두 예언은 1844년 10월 22일 반형적 대속죄일의 도래로 종결되었다.

그날에 인간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결합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때 하박국 2:20과 요한복음 2:20이 모두 성취되었다.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심을 밝혔고, 요한은 그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던 밀러파의 성전이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밀러파 인간 성전의 건립을 나타내는 "46"년의 기간을 마쳤음을 기록하였다. "23"과 "23"으로 구성된 "46"년의 역사는,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220"년 후인 1831년에 그 역사의 기별을 처음 제시하기 시작한 윌리엄 밀러의 사역으로 표상된다. 1611년에 출판된 하나님의 말씀은 "220"년이 지난 1831년에 인간 사자와 결합되었다. 봄 절기와 가을 절기 모두가 "22"절로 표상된다.

같은 주제를 따라 스물두 절씩 두 줄로 구성된 것은, 예언적으로 첫 스물두 절을 다음 스물두 절 위에 겹쳐 놓아야 함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두 줄을 정렬함으로써, 봄 절기들로 표상되는 뜰과 성소의 사역을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예언적 차원에서 이는 두 성전의 결합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보여 준다.

1절부터 22절을 23절부터 44절과 대응시키면, 예언적 연속선이 확립되며, 이는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글자에 의해, 또 숫자 '22'가 지닌 상징성에 의해, 아울러 절기들의 상징성과 그 절기들의 성취가 거룩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의해 증언된다.

봄 절기들의 시작은 먼저 일곱째 날 안식일을 가리키며, 가을 절기들의 마침은 안식년을 가리킨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 반열에서 "22"의 두 증인의 처음과 마지막에 안식을 두셨다.

제칠일 안식일은 1844년에 개시된 반표상적 대속죄일의 시작에 비친 특별한 빛이었고, 제칠년 안식년의 빛은 그 끝의 빛이다. 제칠일 안식일은 또한 레위기 23장의 첫 성회였고,

마찬가지로 제칠년 안식년은 그 장의 마지막 성회이다. 안식일은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제사장직 계열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첫째, 곧 제칠일 안식일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의 알파요, 마지막, 곧 제칠년 안식년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의 오메가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길을 부패시켜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 이 땅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증가한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아들과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진리가 그들에게 펼쳐진다. 성육신의 교리는 은은한 광채로 빛난다. 그들은 성경이 모든 신비를 열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본다. 빛을 받아들이지도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려 했던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The Southern Watchman, 1905년 4월 4일.

여기서,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때", 곧 반형적 대속죄일의 끝에, "성육신의 교리"는 반형적 대속죄일의 시작에서 일곱째 날 안식일의 교리가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광휘로 입혀진다.

예수께서 언약궤의 덮개를 들어 올리시니,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들을 보았다.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정중앙에 제4계명이 있었고, 그 둘레를 부드러운 빛의 후광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천사가 말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규정하는 열 계명 중 유일한 것이니라.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안식일의 기초도 또한 놓였느니라." 증언, 1권, 75쪽.

레위기 23장은 "기초"인 제칠일 안식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제칠년 안식년은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표상되는 제사장들의 증언을 종결한다. 제칠년 안식년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을 표상한다. 제칠년 안식년 중 마지막 것은 2,520으로 표상되며, 마찬가지로 제칠일 안식일은 2,300으로 표상된다. 제칠년 안식년은 "성육신 교리"를 표상한다. 제칠일 안식일은 창조주의 표징이며, 제칠년 안식년은 신성이 인성과 결합된 표징이다.

선들의 정렬

레위기 23장의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서로 대응시켜 볼 때, 유월절의 다음 날에는 칠 일 동안의 무교절이 이어지고, 칠 일 동안의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에는 초실절이 뒤따른다. 사흘에 세 이정표이다.

무교절의 칠 일 기간은 성회로 시작하여 성회로 마친다.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에 초실절이 거행되며, 이는 봄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를 포함한다. 오순절, 곧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오십 일 후에 거행되는데, 초실절이 칠 주간의 시작을 표시하고 그 기간은 사십구 일째에 끝나며, 그 다음(오십째 날)에 오십을 뜻하는 오순절이 이어진다.

유월절은 열나흘날 해 질 때에 시작된다. 유월절은 성회가 아니다.

그런 다음 열다섯째 날에 이레 동안의 무교절이 이른다. 그 이레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이다.

그다음 날, 곧 열여섯째 날인 초실의 날이 도래한다. 그때부터 오순절을 향하여 계수되는 칠 주간이 시작되며, 오순절은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나타나는 일곱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하나이다. 초실의 날은 거룩한 성회가 아니다.

그때에 일곱째 달 초일의 나팔절은 거룩한 성회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의 속죄일은 거룩한 성회이되, 연회는 아니다.

초막절의 첫째 날은 거룩한 성회이다. 이레 동안의 절기 뒤에는 초막절의 여덟째 날이 있으나, 이 여덟째 날은 절기들이 표상하는 여러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여덟째 날은 거룩한 성회이다.

이는 절기들을 여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포함하면 거룩한 성회가 일곱이 된다는 뜻이다. 거룩한 성회가 일곱이고 절기도 일곱이지만, 그 배열은 성회들의 배열과는 다르게 대응한다. 처음과 마지막 이정표는 안식일로, 먼저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고, 다음은 일곱째 해의 안식년이다. 알파 안식일과 오메가 안식일 사이에 규정된 절기는 모두 일곱이며, 그 가운데 거룩한 성회는 다섯이다. 알파인 일곱째 날 안식일과 오메가인 일곱째 해의 안식년을 포함하면, 거룩한 성회가 일곱이고 절기도 일곱이 된다. 장막절의 여덟째 날은 절기들의 일부가 아니며, '일곱 중의 여덟'이라는 수수께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려는 바는, 팔모니이신 예수께서 "23"장 안에 나타나는 수들의 변주를 지극히 놀라운 방식으로 조직하셨다는 것이다.

봄

봄 절기에는 초두에 알파 성회가, 말미에 오메가 성회가 있는 칠일간의 무교절 절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오순절은 봄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성회이다. 오순절은 칠 주간인 기간 후에 도래하며, 그 기간은 오십째 날의 절일로 마감된다. 봄 절기는 네 개의 절일과 세 개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네 개의 절일이며, 세 기간은 무교절의 칠 일, 오순절의 오십째 날을 포함하여 그 날에 이르기까지의 사십구 일, 그리고 세 단계로 이루어진 기간인 첫 사흘이다.

유월절 기간의 초실 제물은 오순절 날의 초실 제물과 상응한다. 곧 유월절의 사흘 동안에는 보리의 초실 제물들이 드러지며, 오순절 절기의 사십구/오십 일이 종결되는 오순절 날에는 밀의 초실 제물이 드러진다.

타락

가을의 절기들은 심판에 이르는 열흘의 기간을 개시하는 특정한 절기일로 시작한다. 심판 후 닷새가 지난 뒤에는 칠 일간의 절기가 있으며, 그 칠 일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거룩한 성회로 지정된다. 제15일부터 제22일까지는 장막절이 지켜지고, 제23일에는 땅의 안식일이 기념된다.

가을 절기들을 봄 절기들 위에 중첩시키면, 둘 다 스물두 구절로 표현되는 두 개의 선이 생기며, 따라서 그것들은 히브리 알파벳의 스물두 글자로 표상된다.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이정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의 거룩한 성회이고, 마지막 이정표는 안식년의 거룩한 성회이다.

또한 일곱째 달 열닷새에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는 여호와께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째 날에는 안식일이요,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39.

오순절은 이른 비요, 초막절은 늦은 비이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으심은 하루로 표상되었고, 초막절이 표상하는 부으심은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마침에 이르고, 그 뒤에는 일곱 날 다음의 여덟째 날, 곧 안식일이 따른다. 성령의 부으심의 최종적 나타남 다음에 오는 그 안식일은 땅이 천 년 동안 안식하는 안식일을 표상한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모두 성읍들과 마을들에서 도망하였으나, 악인들이 우리를 추격하여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에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치켜들었으나, 그 칼은 부러져 쟁처럼 힘없이 떨어졌다. 그때 우리는 모두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해가 떠오르고, 달이 멈추어 섰다. 시냇물의 흐름이 그쳤다. 짙고 무거운 구름들이 몰려와 서로 부딪쳤다. 그러나 굳게 자리한 영광의 한 맑은 곳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고 요동하였다.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어졌고, 사방으로 거친 바위들을 내던졌다. 바다는 솟처럼 끓어 땅 위로 돌들을 내던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임하실 그 날과 그 시를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하실 때, 그분은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는 잠시 멈추셨는데, 그 말씀이 온 땅을 굽이치며 퍼져가는 동안이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눈을 위로 고정한 채 서서, 여호와와 입에서 나와 가장 큰 우레의 굉음처럼 온 땅을 굴러가는 그 말씀을 경청하였다. 그것은 두렵도록 엄숙하였다. 그리고 매 문장의 끝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의 모세의 얼굴과 같이 그 영광으로 빛났다. 악인들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자들 위에 영원무궁한 복이 선포되었을 때,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한 크나큰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땅이 안식하여야 할 희년이 시작되었다." 초기 저술, 34.

희년은 일곱 해의 일곱 주기가 지난 뒤에 오는 오십 번째 해이며, 이는 오순절의 오십째 날에 이르게 하는 마흔아홉 날과 상응한다. 가을 절기의 계열을 봄 절기들과 맞추어 결합하면, 오순절에 이르게 하는 마흔아홉 날이 있으며, 오순절은 장막절의 칠 일 기간의 시작을 표시한다. 오순절과 장막절은 서로 상응하며, 이 둘은 곧 임할 일요법령에서 시작되어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고 주께서 재림하신 다음 땅이 안식하기까지 계속되는 늦은비의 기간을 함께 가리킨다. 그 안식은 안식년으로 표상되니, 곧 장막절의 일곱 다음의 여덟째이다.

스물두 절로 이루어진 두 계열을 함께 결합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다. 두 계열은 각각 2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는 220의 십일조로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한다.

두 행은 모두 22자로 이루어진 히브리 알파벳을 나타낸다.

두 개의 선은 모두 절기들을 표상한다.

두 선은 한 해의 두 수확기를 표상한다.

두 줄 모두는 뜰, 성소,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며, 예수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줄 위에 줄 방법론을 레위기 23장의 전 44절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오순절은 기독교의 이른비였고, 초막절은 기독교의 늦은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봄의 "오순절일"을 가을의 초막절의 이레와 대응시킨다. 화이트 자매가 "환난의 때에 우리는 모두 성읍과 촌락에서 피신하였다"고 진술했을 때, 그녀는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는 시기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초막절 절기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은 땅을 위한 안식일과 희년의 안식으로 직결되는 역사를 예표한다.

오순절의 날은 초막절 일곱 날의 시작을 표지한다. 그런 다음 희년은, 곧 초막절의 일곱 날에 이은 여덟째 날로 표상된다. 초막절 닷새 전에는 속죄일이 있다. 그러므로 초막절 심판의 시작을 표지하는 오순절 닷새 전에 심판이 표지된다. 속죄일의 심판 열흘 전에는 나팔절이 있다. 이 선들을 결합하면, 오순절로 대표되는 일요일 법령 닷새 전에 심판이 표지된다. 그로부터 열흘 전에는 나팔절이 표지된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을 표상하였다. 그 세 단계는 유월절에 죽으심, 안식일에 장사되시어 안식하심,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표상된다.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의 사흘은 세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이정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의 두 계열의 결합을 부활에서 시작한다. 셋째 날의 부활은 오순절로 이끄는 사십구 일의 기간을 시작하며, 이 오순절은 일요일 법령이다. 그 사십구 일의 기간에 앞서 무교절이 있는데, 그 절기는 초실절 하루 전부터 시작하여 초실절을 지난 뒤 닷새 동안 계속된다.

첫 열매의 부활로부터 일요일 법령까지는 사십구 일이며, 일요일 법령은 오십째 날이다. 일요일 법령 오 일 전에 심판이 표시되고, 그 심판 열 일 전에 나팔의 경고가 표시된다. 첫 열매의 부활이 첫째 이정표이며, 그로부터 오 일 후에 무교절 기간이 종결된다. 무교절이 끝난 뒤 삼십 일 후에 나팔의 경고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십 일 후에 속죄일의 심판이 표시되며, 다시 오 일 후에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이 도래한다.

이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줄에 줄' 방식으로 적용할 때 일곱 개의 이정표를 식별한다; 무교절의 시작, 부활, 무교절의 끝, 나팔의 경고, 심판, 오순절, 그리고 늦은 비이다. 그 일곱 이정표는 알파의 제칠일 안식일과 오메가의 제칠년 안식년 사이에 설정되어 있다. 두 안식일 사이에 놓인 그 일곱 이정표는 5일의 기간, 이어서 30일의 기간, 10일의 기간, 5일의 기간, 그리고 7일의 기간을 분리하고 식별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추어 보면, 그분이 제자들을 "대면하여" 가르치신 사십 일의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승천하셨다. 이어서 십 일 동안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었다. 그 십 일은 오순절 날에 끝났는데, 그것이 곧 주일법이다. 이는 레위기 23장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의 시간선에 사십 일의 기간과 십 일의 기간을 추가하는 것이다.

부활로부터 무교절의 끝까지 5일이 있고, 그 다음 나팔의 경고까지 30일이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5일이 있고, 그 다음 심판까지 5일이 있고, 그 다음 오순절의 늦은 비의 7일까지 5일이 있다.

무교절의 칠 일이 시작된 다음 날에는 첫 열매의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무교절의 칠 일 가운데 일어나며, 부활 후 닻새가 지나 무교절의 기간이 끝난다.

무교절이 종료된 지 삼십 일 후에 나팔들이 경고를 알린다.

나팔의 경고가 있는 지 5일 후,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가르치신 뒤 승천하셨다. 그의 승천으로 다락방에서의 10일이 시작되었다.

이에 그의 승천 후 닻새 만에 심판이 지정된다.

닻새 후에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이 늦은 비의 칠 일의 기간을 개시한다.

십사만 사천 명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다. 엘리야와 모세는 2020년 7월 18일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2023년 12월 31일의 부활을 예표하였다. 그 날짜 이전, 2023년 7월에,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무교병으로 표상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누룩은 오류와 위선과 죄를 상징하며, 그 광야에서 온 메시지는 누룩이 없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23장은 십사만 사천을 위한 속죄의 틀을 설계한 바 있다. 그 틀은 밀러의 꿈, 말라기 3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늘의 창들과 상응한다. 또한 주후 27년에서 34년에 이르는 거룩한 주간의 제3시와 제9시와도 상응한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들이 모든 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히 채워지리라.'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도 힘은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발달은 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정신적·영적 발달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두셨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현세와 내세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모든 원칙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서 거기에서 어떤 유익한 생각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이따금씩 하거나 단편적으로 공부해서는 얻을 수 없다. 그 위대한 진리의 체계는 성급하거나 부주의한 독자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보화 가운데 많은 것들은 표면 아래 깊이 놓여 있으며, 부지런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 위대한 전체를 이루는 진리들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사야 28장 10절) 찾아내어 모아야 한다.

이처럼 찾아내어 모아 보면, 그것들이 서로 완전히 들어맞음을 알게 된다. 각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완하고, 모든 예언은 다른 예언을 설명하며, 모든 진리는 어떤 다른 진리의 전개이다. 유대 경륜의 예표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안의 모든 원리는 제자리를 지니고, 모든 사실은 그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구조는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그 저자를 증언한다. 그러한 구조는 오직 무한하신 분의 지성이 아니고서는 구상하거나 빚어낼 수 없다.

여러 부분을 찾아내고 그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정신의 최고 기능들이 극도로 활성화된다. 그러한 연구에 종사하면서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성경 연구의 정신적 가치는 진리를 찾아내어 종합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제시된 주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에도 있다. 오직 일상적인 일들에만 몰두한 마음은 위축되고 쇠약해진다. 장대하고 원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과제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간과 함께 성장의 능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퇴화를 막고 발전을 자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지적 훈련의 수단으로서 성경은 어떤 다른 책보다도, 아니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그 주제의 위대함, 표현의 품위 있는 단순함,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듯이 사고를 일깨우고 고양시킨다. 계시의 장엄한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만큼 그러한 정신적 힘을 부여하는 다른 공부는 없다. 이처럼 무한하신 분의 생각과 접촉하게 된 마음은 확장되고 강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영적 본성의 발전에 있어서 성경의 능력은 더욱 크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된 인간은 오직 그런 교제 안에서만 자신의 참된 생명과 발전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찾도록 창조된 그는 마음의 갈망을 잠재우고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 줄 것을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 성실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의 저자와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한 그의 발전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다.

성경은 그 문체와 주제의 폭넓음 속에서 모든 지성의 관심을 끌고 모든 마음에 호소할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그 페이지들에는 가장 오래된 역사, 삶에 가장 진실한 전기, 국가의 통치와 가정의 규율을 위한 원리들—인간의 지혜가 일찍이 견주지 못한 원리들—이 담겨 있다. 그것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 가장 감미롭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격정적이고 가장 애절한 시가 들어 있다. 이처럼만 보더라도 성경의 기록들은 어떤 인간 저자의 작품들보다 가치 면에서 헤아릴 수 없이 우월하다. 그러나 그 위대한 중심 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바라볼 때, 그 범위는 무한히 더 넓고 그 가치는 무한히 더 크다. 이 사상의 빛에서 바라보면 모든 주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가장 간명하게 진술된 진리들 속에도 하늘처럼 높고 영원을 아우르는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의 중심 주제, 곧 성경 전체의 다른 모든 주제들이 결집하는 그 주제는 구속 계획, 즉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에덴에서 선고된 판결 속에 담긴 소망의 최초의 암시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 22:4)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구절의 요지는 이 놀라운 주제의 전개이다—인류의 고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고린도전서 15:57) 하나님의 능력.

이 생각을 깨닫는 자 앞에는 연구를 위한 무한한 영역이 펼쳐져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 보고를 그에게 열어 줄 열쇠를 지니고 있다.

구속의 학문은 모든 학문들의 학문이다;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의 모든 지성 존재들이 연구하는 학문이며; 우리의 주와 구주께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학문이며; 무한하신 이의 마음 속에 깊이 숙고된 목적—'영원한 시대들 동안 침묵 가운데 간직되어 온'(로마서 16:25, R.V.)—에 참여하는 학문이며; 끝이 없는 시대들에 걸쳐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연구하게 될 학문이다. 이는 사람이 탐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연구이다. 다른 어떤 연구도 그러할 수 없듯이, 그것은 정신을 각성시키고 영혼을 고양시킬 것이다.

'지식의 탁월함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데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또한 생명이라.'" '영생은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과 주께서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니라.' 전도서 7:12; 요한복음 6:63; 17:3, R.V.

우주 만물을 존재로 불러내신 창조적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능력을 부여하며 생명을 낳는다.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것을 의지로 받아들이고 영혼에 품을 때, 그것은 무한하신 분의 생명을 함께 가져온다. 그것은 본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재창조한다.

이와 같이 부여된 생명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마태복음 4:4)으로 사람은 살리라.

마음, 곧 영혼은 그것이 무엇을 양식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워진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양식으로 삼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모든 이에게는 생각을 차지하고 품성을 형성할 주제들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성경에 접할 특권이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율법의 큰 일들을 그를 위하여 기록하였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호세아 8:12; 예레미야 33:3.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인생의 형편이 어디에 놓이든지, 각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의 기록 속에서 그는 인류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선한 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영원하신 분께서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베드로전서 1:12) 주제들을 연구하고 목상할 때, 그는 그들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그는 하늘의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이 산과 평야와 바다에서 가르치실 때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분위기 속에 거하며, 땅에서 슬퍼하고 시험받는 이들에게 소망의 생각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전해 줄 수 있다;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과의 교제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옛적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처럼, 영원한 세계의 문지방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마침내 문들이 열려 그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그는 자신이 낯선 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를 맞이할 음성들은,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땅에서 그의 동반자였던 거룩한 이들의 음성들—그가 이곳에서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게 되었던 그 음성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교제하며 살아온 자는, 하늘의 교제 가운데서 자신이 집에 있는 듯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교육, 123-127.